

## PREVIEW

최승훈, 이혁 <CONSTRUCT>  
Choi Sunghun, Rhee Hyuek <CONSTRUCT>

전시기간 | 2017. 8. 11 금 - 8. 31 목  
오프닝 리셉션 | 2017. 8. 11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추후 공지



◎ 인터뷰

Q. 전문 분야가 다른 두 분이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셨는지요?

A. 이: 둘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번갈아가며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습작, 스케치를 보여 주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다이얼로그들과 각자의 반응을 담아낸 것이 이 전시입니다. 주제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이나 표현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그 다름이 한 공간에서 섞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최: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처음부터 의미 있는 결과물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상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란, 설명과 이유가 필요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건축가와 예술가가 전시했는지?', '이번 작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의 질문들에 전시를 보는 것으로 답이 되는 지점에 도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이번 전시 <CONSTRUCT>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특정 공간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미술 전시에 대한 성격이 강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공간은 어떤 성격으로서 보여주게 되나요?

A. 이: 우리가 익숙한 실내공간을 작업의 레퍼런스로 이용하고 있고, 전시공간과 밀착된 설치물입니다만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보다는 공간 일부를 떼어내어 오브제로서 보여준다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최: 몇 년 전부터 찍어오던 여러 사진 중에 비계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건축물 사진시리즈가 떠올랐습니다.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완전전태를 하는 곤충의 애벌레가 성충으로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아주 거대한 번데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촬영 당시 저 자신과 비슷한 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든 생각인데, 여러 논의 중에 이혁 건축가가 먼저 물질성이 강한 오브제 작업을 얘기해서, 저는 제 사진들 중에서 거대한 유명 같은 이미지가 없을까 하고 반응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CONSTRUCT>는 저희의 전시 계획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발견된 의미입니다.

Q. 건축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이미지와 공간이 기대되는데, 시각예술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이: 좋은 친구 같은 관계 아닐까?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거나 상호의존적인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같이 어울렸고, 잘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 문학과 정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Q. 이혁 건축가께서는 건축가로서 기존에 다루는 도면이나 실제 재료들이 이번 전시에서 구현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떤 부분이 같은지 말씀해주세요.

A. 건축가로서 활동하면서 그리려는 많은 도면은 제3자를 통해 건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은 시공자와의 정확한 소통을 위한 객관적인 언어의 성격을 갖고 시공의 순서는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전시가 저에게 주는 의미 중의 하나는 내가 직접 바닥과 벽체를 만들어 보면서 '건축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검증하고 규정된 순서에서 탈피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Q. 최승훈 작가님의 작업에서는 이미지적 강렬함 못지않게 언어의 논리성이나 공간에 대한 해석이 강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논리성이 개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 전시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전시여서 혼자 작업 할 때와는 많이 다른 자세로 임했습니다. 제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에 집착하지 않고, 놀이로 임했습니다. 작업에 대한 의미나 공간에 대한 해석도 서로 대단히 빠르게 반응하면서 생각을 주고받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박용석 개인전 <당신의 기대>  
Park Yongseok solo exhibition <What's your perspective?>

전시기간 | 2017. 9. 5 화 - 9. 30 토  
오프닝 리셉션 | 별도의 오프닝 행사는 없습니다.  
아티스트 토크 | 2017. 9. 30 토 16시



◎ 인터뷰

Q. 오랜만에 전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전시보다는 영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작업 혹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요?

A. 저는 현대미술에서 미디어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영상 작업에 몰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최근 저의 작업이 영상작업에 적절한 미디어였을 뿐입니다. 몇 년간 작업을 돌아보면 어떤 사건의 기록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경우, 회화나 설치보다 사진이나 영상이 적절한 도구가 되고 작업에 시간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적절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기록한 사건들 대부분이 재건축에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 "현장"과 "변화"를 담았고 그래서 영상이라는 미디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Q.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식물들 : 자카르타 모노레일 103> 작업에서 영상 작업은 사운드 작업에 가까운 정도로 그 사운드와 이미지의 조합이 강렬합니다. 이 작업에서의 사운드의 역할이 특별한지, 그리고 사운드와 영상과의 관계를 특별히 고려하였는지 궁금합니다.

A. 영상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본이나 콘티가 필요하죠. 음악은 보통 효과로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음악 콘셉트를 잡고 시작한 작업이었어요. 작업은 103개의 기둥을 촬영한 것인데요. 처음 현장에서 셔터를 누를 때 "박수" 소리를 떠올렸고 그 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수는 동의, 환호, 격려, 광기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몸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소리에 맞춰 기둥을 나열했을 때 이미지가 춤을 추듯 혹은 어딘가로 향해 달려가듯 보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도시에 방치된 기둥이 마치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죠. 촬영을 마치고 여러 종류의 박수 녹음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음악을 구성하기에 저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던 어느 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한옥미 작곡가의 연주회 영상을 도와드리며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흔쾌히 작업하고 싶다고 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음악의 도입과 마무리에 대한 저의 의견 그리고 사진 몇 장과 이 기둥에 담긴 사연을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음악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작품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옥미 선생님과의 작업은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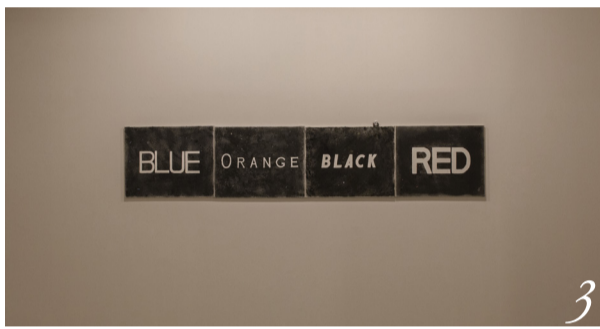
Q. <소녀상>, <문장 만들기>나 <꾸밈말> 등의 경우, 작가가 관객에게 보다 적극적인 참여 혹은 작품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작업 형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작가로서의 본인의 역할 또는 작가로서의 영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소녀상>은 제가 약 4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작업은 조형물이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게 되는가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관심으로 바라보니 <소녀상>은 그것이 놓은 장소, 크기, 구성으로 인해 관객의 간섭을 끌 수 있었고 게다가 몇 해 전 조형물의 이전이 외교 쟁점화되면서 여러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장소가 되었죠. 저는 이런 반응의 현장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반응은 슬픔, 분노, 기원, 반성 등을 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 시간들을 나열해보니 최근 우리 사회의 흐름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작업은 소녀상이 지워져 있는, 이를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작업하면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고민도 아니고 그 생각을 하면 작업을 못 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지?"에 대한 고민은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작가를 '제안하는 사람'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둘 다 관객의 참여를 전제하지만, 제안이 어느 정도 작가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질문은 관객의 입장을 더 요구합니다. <꾸밈말>은 <소녀상>에서처럼 대상의 중심을 지우고 주변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유사합니다. <문장 만들기>는 구조를 흐트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점대로 보기를 시도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술이기에 가능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시 제목이 <나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기대>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 REVIEW with PHOTOS |

신기운 개인전 <세상은 회색이다>  
Shin Kiwoun exhibition <The world is GRAY>  
2017. 7. 6 목 - 2017. 7. 27 목



1,2 | 오프닝 리셉션, 7월 6일  
3 | The world is gray 'BLUE', 'ORANGE', 'BLACK', 'RED'

검정 종이 위 흰 글씨의 편지 한 장.  
정반대를 보여줄 때의 파격은 크다.  
스키니에서 와이드한 나팔바지로,  
돌고 돈다는 유행. 그 시초에 대한 집중.  
회전하며 뜨거워진 쇠에 갈리던 무엇들은  
결국 회색이 되었다. 무채색의 중간.  
지금은 그 회색에 머물러 한다.  
'도 아니면 모' 아니고 '걸' 쯤에서.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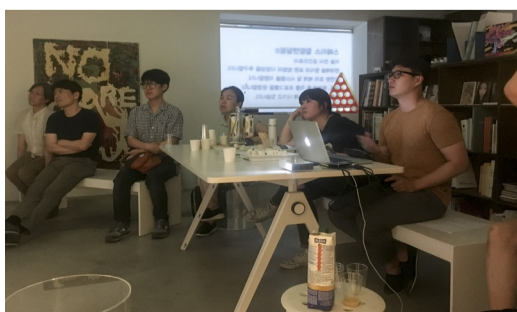
지누박 개인전 <OH NO MORE ART>  
Zinoo Park solo exhibition <OH NO MORE ART>  
2017. 6. 21 수 - 2017. 7. 2 일



소설 제목 '미운 오리 새끼'에서 '오리 새끼'를 수식하는 단어 '미운'은 단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부터 인지함에 따라 붙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 = 백조'라고 쉽게 상정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얼마나 될까? 오리인지 백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리고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닐까? (글. 최원재 인턴)

1,2,3 | 오프닝 리셉션, 6월 21일

PAST  
Meet & Talk : 안길원 × 양수형  
2017. 6. 27 화 19시



안길원 작가와 양수형 작가는 'Invalid'라는 주제로 6월 M&T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NEXT  
Meet & Talk : 김서진 × 김지민  
2017. 9. 13 수 19시

다음 M&T에서는 남서울예술인마을의 김서진 작가와 김지민 작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아트톡 윌링앤딜링'  
ART TALK  
아트톡 윌링앤딜링  
8월에 함께 녹음할 손님은 최승훈 작가와 이혁 건축가입니다. 메인 진행에는 김인선, 보조 진행에는 한황수 작가가 함께합니다.

\* 사운드클라우드, 팟빵,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장종완 작가는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개인전 <Organic Farm>을 가졌습니다. 2017년 7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심아빈 작가는 금천예술공장 8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와 기획전 <다시, 주변인 (기획:오세원)>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구민정 작가는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 미술관에서 <Hits, 우르르, 쉬익>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7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노은주 작가는 2017 난지아트쇼3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본 걸까?>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박선민 작가는 2017 난지아트쇼2 <해적판 Pirate Edition>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추미림, 백경호 작가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Wonderland>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7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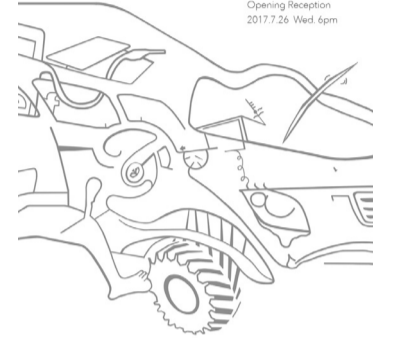
추미림 작가는 스페이스 캔에서 <예술가의 시선 1: 조감적 시야>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홍승혜 작가는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그룹전 <강정, 미래의 기록>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권오상, 홍승혜, 이윤호(신도시)작가는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2017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7월 30일까지.

손동현 작가는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제15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작가 개인전 <Jasmine Dragon Phoenix Pearl>을 가졌습니다. 2017년 7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Are you gentle? Hwangsu Han  
한황수 개인전  
2017.7.26 - 8.16  
Opening Reception  
2017.7.26 Wed. 6pm



한황수 작가는 수애노339에서 개인전 <Are you gentle?>을 가졌습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 | W&D NEWS |

김인선 디렉터는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괴테의 나라 독일과 뉘른베르크의 나라 네덜란드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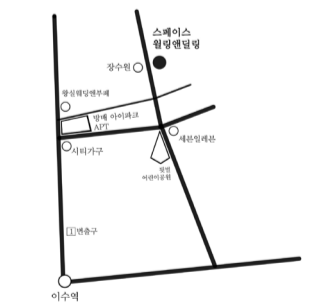
아래 사진은 독일에서 맛보았던 궁극의 '학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닭고기 같은 느낌의 돼지 담이었다!



최원재 인턴은 여름과 어울리게 맘을 많이 흘린다. 누군가 그녀에게 '맘녀'라고 하여 '맘녀'의 유래를 공부하는 중이다.

조근준 인턴은 여유로운 학부 마지막 학기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졸업전시 준비위원회다. 그는 자유롭게도, 여유롭게도 못할 것이다.

오시는길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 한황수, 최원재, 조근준  
감수 : 김인선  
발행일 : 2017년 8월 8일